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③

華嚴經 立爲法界 交徹融攝故
화엄경 입위법계 교철융섭고
金剛經 號爲如來 無所從來故
금강경 호위여래 무소종래고
般若經 呼爲涅槃 聖所歸故
반야경 호위열반 중생소귀고
金光明 號曰如來 眞常不變故
금광명 호위여래 진상불변고
淨名經 號曰法身 報化依止故
정명경 호위법신 보화이지고
起信論 名曰眞如 不生不滅故
기신론 명알진여 불생불멸고
涅槃經 呼爲佛性 三身本體故
네파안경 호위불성 삼신본체고
圓覺中 名曰總持 流出功德故
원각중 명알총지 유출공덕고
勝鬘經 號曰如來藏 隱覆含攝故
승만경 호위여래장 은복함섭고
義經 名爲圓覺 破暗顯照故
의경 명유원각 파암독조고
由是禪師 唯心訣云 一法三名
유시수선사 유심결은 일법천명
應緣立號 備在來經 不能引引
응연입호 비재중경 불능구인

하경다명 응감수기 기명역중
有時自己 家生本性故
유시자기 중생본성고
有時名爲正眼 鑑諸有相故
유시명위정안 감제유상고
有時呼曰妙心 虛靈寂照故
유시호일묘심 허령적조고
有時名曰主人翁 從來尙負故
유시명일주인옹 종래하부고
有時呼爲無底鉢 隨處生蓮故
유시호위무저발 수처생에고
有時喚作沒絃琴 韻出今時故
유시환작몰현금 운출금시고
有時號曰無盡燈 照破迷情故
유시호일무진등 조파미정고
有時名曰無根樹 根蔕堅牢故
유시명일무근수 근계견고고
有時喚作吹毛劍 截斷塵根故
유시호위취모검 절단진근고
有時喚作無爲國 海晏河清故
유시환작무위국 해안하청고

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알았는데, 조사의 가르침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했다. "조사의 문에서는 이름과 말이 끊어졌기에 하나의 이름도 불이"

(화엄경)에서는 법제라 했으니 서로 사무치고 융통하여 포섭하기 때문이

보리 법계 여래 등 진심의 천가지 이름은

'하나의 법'을 인연 근기따라 보기 때문

요. (금강경)에서는 여래라 했으니 온 곳이 없기 때문이요. (반야경)에는 열반이라 했으니 모든 성인이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요. (금광명)에는 여래라 했으니 항상 진실하고 불변하기 때문이요. (정명경)에서는 법신이라 했으니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이 의지하기 때문이요. (기신론)에서는 진여라 했으니 생멸이 없기 때문이요. (네파안경)에는 불성이라 했으니, 삼신(三身)의 본체가기 때문이요. (원각경)에 총지라 한 것은 공덕을 흘러나오게 하는 때문이요. (승만경)에 여래장이라 한 것은 숨겨 덮고 포섭하기 때문이요. (의경)에 원각이라 한 것은 어둠을 부수고 홀로 비추기 때문이요. 이런 까닭으로 수선사는 (유심결)에서 '하나의 법에 천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인연을 따라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여러 경전에 두루 있으므로 다 인용할 수는 없다.

지 않는데 무슨 많은 이름이 있었는가. 그러나 마음에 응하여 느끼는 그 근기에 따라 이름이 많게 된다. 때로는 자기가 했으니, 이는 중생의 본성이기 때문이요. 때로는 정안(바른 눈)이라 한 것은 모든 모양을 바로보기 때문이다.

때로 묘심(원묘한 마음)이라 한 것은, 비었으나 신령스러우며 고요하지 만 우주를 비추기 때문이며, 때로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예로부터 걸머지고 온 것이기 때문이요, 때로 무저발(말이 없는 발)이라 한 것은 초승달(줄 없는 거문고)이라 하는 것은 금시라도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때로는 무진등(다함이 없는 등)이라 했는데 이는 잘못된 마음을 비추어 부수어 버리기 때문이요. 때로는 무근수(뿌리없는 나무)라 했으니 뿌리와 꼭지가 견고하기 때문이요. 때로 취모검(풀어서 날리는 달도 자를만큼 예리한 칼)이라 한 것은 번뇌의 뿌리를 절단하기 때문이요. 때로는 무위국(무위의 세계)이라 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고요하고 강이 맑음과 같기 때문이요.

김원각(시인)

或曰佛敎已知 祖敎何如
혹왈불교이지 조교하어
曰祖師門下 杜絕名言 一名不立
왈조사문하 두절명언 일명불립
何更多名 應感隨機 其名亦衆

큰스님 수행한담

“미워하는 마음 푸세요

도운스님 (쌍용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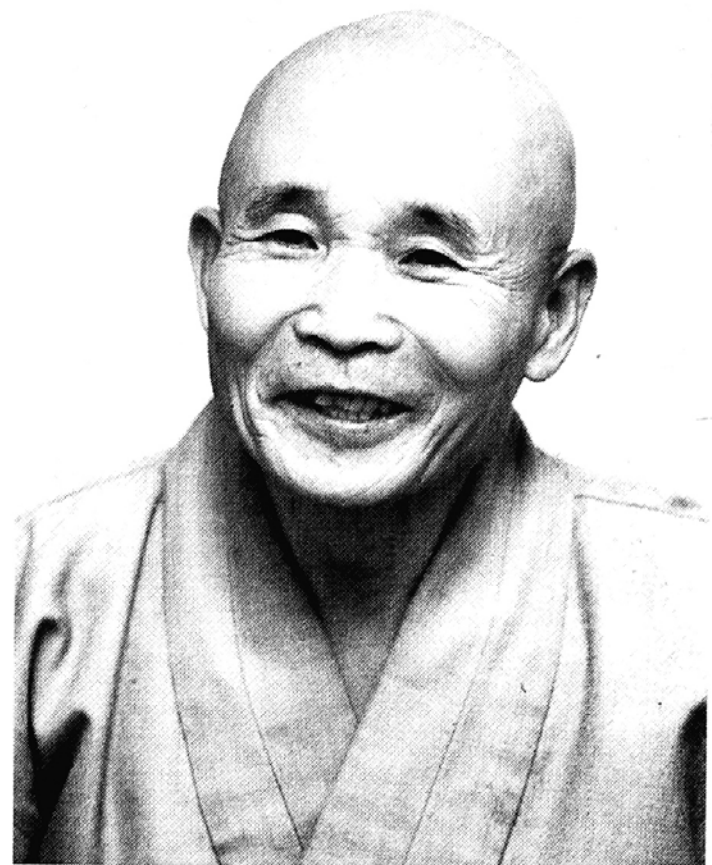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집안 당숙 어른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른이 동국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하셨던 고(故) 뇌허 김동화박사님인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학교 다닐 때 4년동안 한 집에 산 적이 있는데 꼭 부처님을 대하는 것만 같았어요. 훌륭한 스님들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그때 그분 밑에서 느낀 감화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할 즈음 4·19가 났어요. 사회가 어지러웠던 때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분위기였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산중 사찰에는 훌륭한 선지식들이 계시리라 여겼지요. 김동화선생님은 북한암의 관음스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속리산 북한암을 찾아가 관음스님께 3년동안 공부하고 싶었는데 거두어 주시겠다고 여쭈었지요. 스님은 허허 웃으면서서 3년 있고 싶냐며 평생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인산을 해도 3년 있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처음 산사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것은 한문예의 욕심이 있어서였습니다. 통양사를 전공하다 보니깐 한문 서적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불교 경전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경전을 배우면 한문 문리도 트이겠다 싶었습니다.

당시 북한암에는 7명 정도 스님이 계셨는데 서로 무릎을 맞대고 (서장) 강의를 들으니까 머리 속에 속속 들어오고 별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행복을 느꼈지요. 스님께 머리를 쥐고 먹물웃도 한발 얻어 입었습니다. 행자 생활을 시작하자 잠된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나무하고 장작패고 밤에는 공부하며 살았습시다. 3개월이 지나고 관음스님께서 직지사로 옮기시는 바람에 우리도 당당히 직지사로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 스님은 나전을 가르치시고 나는 전공인 사학을 가르쳤어요. 통양사 국사문화사의 세 과목을 가르치며 내전 강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학에서의 불교 현대화 작업의 시초였어요. 60년대엔 전국 사학 어디에도 사학을 가르치는 곳은 없었습니다. 관음스님은 불교의 현대화를 주장하시며 법당 안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칠판에 분필로 써가며 강의를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모름지기 출가수행하는 이는 내전 외전을 모두 겸비해야 한다는 생각이셨습니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인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아는 것이 힘이고 곧 수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영어 공부도

시켰어요. 지금도 불교계에서는 교육을 강조하는데 사실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불교가 내분 없이 올바른 정법의 길을 가려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 공부야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질 사무를 보고 행정처리를 하는 사람들도 일정기간은 공부를 해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사무에 노출되어 있으면 수행자의 본분을 잊기 쉬워요. 그래서 가끔씩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에 정진해야 합니다.

나는 대학을 나온 덕에 관음스님께 귀염 많이 받았습시다. 스님 밑에 있던 상좌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5·16이 터졌고 나는 은사스님의 허락을 받아 강원도 정선 정암사 위에 있는 적조암에 머무르게 되었지요. 적조암은 내가 제2의 출가를 한 곳입니다. 이미 경전은 어느 정도 배운 상태였



- 1931년 경북 경산 생
- 1959년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 1960년 관음스님을 은사로 출가
- 1965~72년 정암사 적조암 오세암 불정암 백담사 주지
- 1980년 중앙승가대 2대 학장 및 이사장
- 1988년 강원도 인제 영시암 창건
- 現 의정부 쌍용사 주석

“수행안된 사람에게 돈과 권력을 주는 것은 미친이에게 칼 주는것 같아”

기에 가져 갔던 경전이며 책들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옷 한벌과 바리때 한 벌만 챙겨서 떠났지요. 머뭇대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조암은 말이 많지 않아요. 그야말로 토굴 생활이었습니다. 혼자서 나무하고 농사짓고 살다보니 자연히 묵언을 하게 됐지요. 낮에는 채소키우고 나무하고 밤에는 앉아서 참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晝耕夜讀)에 안 주경야선(晝耕夜禪)이었지요. 밤에 잠을 자지 않다보니 낮에 졸지 않기 위해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일을 했습니다. 1년여 만에 적조암에서

정암사로 내려와 혜진스님께 참선지도를 받았습시다. 혜진스님은 청담스님, 향곡스님도 도반이셨던 분이죠. 한 3년정도 참선 수행을 했지요. 화중생연(火中生蓮)이라고 불 가운데 연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선(禪)입니다. 선이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참선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참선은 깊은 산중에서 가부좌를 튼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 여러분도 꾸준히 참선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물론 산중에서 수행

하는 스님처럼 할 수가 없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씩, 자기 전에 아니 자면서도 자신만의 화두를 찾아 참선을 하시면 우선 생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정암사에서 선수행을 하고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갔습시다. 나는 빈터만 남은 오세암에 올라가 그 터에 이불을 천막처럼 치고 살게 됐습시다. 또다시 토굴생활을 시작한 거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에 몰두하는 장좌불와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적조암에서 참선하던 때와는 달리 이전 참선의 묘리를 어느 정도 깨친 뒤라 참선의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자연생활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낮에 탄 것 약초 등을 주변 화전민에게 주고 양식과 바퀴 먹었어요. 3일 정도 약초랑 잤을 때면 1년은 너끈히 살 수 있는 양식이 마련됐지요. 백장침규를 꼭 따르지 않더라도 내 먹을 것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수행하는데 좋아요. 혼자 그렇게 살다보니 옷이 깨끗하든 더럽든 열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x 45cm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막한 기운을 수 받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은 불려들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기의 영향이 완전히 바뀌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밤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에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